

클린턴정부 경제자문 프랑켈 하버드대 교수

【보스턴·서경림특파원】 클린턴 행정부의 백악관 경제자문위원 출신으로 국제경제 분야 대가로 꼽히는 하버드대 경제학과의 제프리 프랑켈 교수는 8일(현지시간) "달러가치 하락이 향후 10년 동안은 내세로 나타났지만 직년처럼 올해엔 달러가치가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달러약세 향후10년간 대세
올해 하락폭은 크지 않을것

전미사회과학연합회(ASSA) 총회 참석차 보스턴을 방문한 프랑켈 교수는 이날 웨스턴호텔에서 기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고 "지금 미국은 달러보다 채권시장이 더 문제"라며 "2008년 말 이전에 미국 채권시장은 큰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작년에 대부분 경제학자들이 달러 가치 하락을 예상했으나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

—앞으로 10년 동안은 달러가치 하락이 대세다. 다만 일시적으로 당분간은 그 반대가 될 것으로 본다.

—올해를 예상한다.

—연말 —올래

말 보편에 의하면 재정이 악화되고 저축률도 낮으면 달러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금융정책도 지난 2004년까진 느슨했다. 그러나 금리인하가 다시 인상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미국 금리가 유럽이나 일본 금리보다 높다. 달러가치를 지탱할 요인이 사라졌다. 하지만 경상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의 6%를 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마치 1980년대 초반과 유사하고 달러가치 하락은 불가피하다.

—고세사인지 제2 부르크 합의가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조만간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미국이 다른 관권국들의 힘을 모두 모아 글로벌 리더십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2 부르크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결론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결론은 답한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플라자 합의 당시와는 달리 중국과 한국 등이 꼭 포함돼야 한다. 또 쌍둥이 적자를 줄이기 위해 미국측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세련책은 플라자 합의에서

얻은 교훈 중 하나인데 제2 부르크 합의와 함께 제2 부르크(Louvre) 합의가 필요하다. 국가간 합의로 달러가치를 관리하고 나면 달러가 스스로 급모르게 하락할 위험이 있다. 부르크 합의가 있어야 달러의 추락을 막을 수 있다.

—달러가치가 최근 급락하면서 환율이 많이 오르고 있다. 한국으로선 일본 엔화와의 환율이 중요하다.

—어느 정도 절상이 적절할지는 말할 수 없지만 각종 연구결과를 보면 달러가 하락할 때 아시아 국가들의 화폐

가치는 달러가치를 강하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홍콩 달러나 중국 위안화는 달러가치에 완전히 붙어 있다. 반면 한국 원화는 상대적으로 둔다. 이런 점에서 생각하면 한국 원화가 절상해도 유로나 일본 엔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절상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요즘 한국 원화의 절상은 너무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다.

—다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이 된다면 무시 행정부에 어떤 조언을 하겠는가.

—모든 정책이 잘못됐다. 외교안보·사회정책 등에 모두 반대한다. 특히 경제정책에선 국제정책이 잘못됐다.

—정책이 잘못했다면 그 정책실패의 결과는 무엇인가.

—앞으로 몇 년 안에 미국경제는 경직성이 불가피하다. 아마도 2008년 말 이전에 될 것이다. 엄청난 적자의 교혼을 배우게 될 것이다. 미국은 지금 달러가치보다 채권시장이 더 위험하다.

—한국은 외환보유액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도 외환다변화의 좋은 기회가 아닌가. 유로 쪽도 늘리고 아시아 다른 국가 화폐 비중도 늘릴 것을 권하고 싶다.

부시정부정책 모두 잘못
美경제 수년내 경착륙